

#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공간이용 변화

송경언

공주대 강사

## 1.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관광지 발달과정에 대한 논의에 있어 발달단계의 구분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대체로 관광객 수와 관광 기능이다. 관광객 수를 지표로 하는 것은 관광지와 관광객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소홀하고, 관광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관광지와 관광객의 차이를 반영하지만 관광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인 주민의 공간적 대응과정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어촌의 관광기능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화에 따른 주민의 공간적 대응양상을 살피는 것은 관광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문제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공간적 문제를 온전하게 살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어촌은 땅 뿐만 아니라 바다도 포함하고 있어 농촌에 비해 관광지화에 유리하다. 관광객(수요자)은 일상생활에서 대하기 어려운 바다를 만날 수 있고, 관광지 주민(공급자)은 대체로 어업과 농업의 兼業에 참여함으로써 농업활동이 專業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농촌보다 새로운 생활활동인 관광관련활동에 참여하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어촌은 97곳으로 전체촌락 272곳의 35.7%, 해안촌락 113곳의 85.8%에 이른다<sup>1)</sup>. 어촌 가운데 관광기능이 분포하는 곳은 모두 67곳으로, 전체어촌 97곳의 70% 정도가 관광어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에 대한 논의는 관광지화 과정에 있어 바다와 땅이라는 대조적 요소로 구성되는 어촌공간의 이용 양상과 프로세스의 사례어촌간 비교 고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간이용의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은 관광어촌의 일반적 현상인 어촌공간상의 생산활동간 결합의 과정과 변화를 분석한다. 공간이용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관광관련활동의 생산활동 형태가 겸업에서 전업으로 전개되는 것이 관광관련활동이란 새로운 기능 참여의 위험부담에 대응하는 과정이라 보고, 이러한 과정이 공간이용 양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어촌별 관광지화 과정에 대한 기술은 기존생산활동에서 관광관련활동으로의 변화가 대체로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병행 → 관광관련활동간 병행 →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이라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러한 틀로 이루어지며, 사례 관광어촌에 대한 구분은 관광자원에 따른 관광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접근성에 의해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학이 가능한 해안어촌과 그렇지 못한 연안어촌으로 하였다.

## 2. 사례어촌별 관광지화 과정

### 1) 해안 어촌: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1리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간 병행을 대표하는 것은 바다낚시와 어로활동간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다낚시는 그 목적에 따라 낚시 경험이 풍부한 낚시객들의 취미형과 경험이 적은 관광객들의 체험형으로 구분된다. 체험형 낚시객의 수는 취미형 낚시의 두배 정도에 이르고, 체험형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7~8월, 10~11월이 가장 붐빈다. 이는 8~9월의 한치어로 성어기와 8월이 겹치고, 한치어로가 가능한 6~11월과 대부분 겹치나, 한치잡이는 시기적으로 심한 편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바다낚시와 한치어로는 각각 낮과 밤에 이루어지므로 둘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1) 어촌은 소규모 어항이 존재하는 촌락으로 보았다.

2) 관광어촌은 관광기능이 1개 이상 분포하는 곳으로 간주했다.

바다낚시는 어로 활동과의 겸업을 통해 쇠퇴일로의 어로활동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로와 농사, 어로와 잠수, 어로와 오징어 건조 등 어로활동을 포함하는 기존 생산활동간 병행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이는 관광활동인 바다낚시가 기존 생산활동간 병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어업활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로활동과 잠수활동에 참여하는 가구단위의 성별 분업은 1980년대 중반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남성의 바다 낚시와 여성의 오징어 건조라는 또 하나의 성별 분업 수용이 용이하도록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생산활동간 병행이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관련활동은 기존 생산활동들이 병행되도록 하며, 기존 생산활동의 병행은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이 병행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다의 낚시에다 해안에 횃집과 민박이 입지함으로써 관광관련활동들은 병행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관광관련활동인 낚시, 횃집, 민박 가운데 1980년대 초에 시작된 낚시는 1990년대 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횃집은 1990년대 초에 이미 2000년과 같은 수인 5곳이나 분포하였던 반면, 상시민박은 1990년대 말에 모두 들어섰다.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에 있어 기존생산활동과 보완관계를 이루는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관광관련활동들이 바다와 해안이라는 상이한 공간에서 병행되었던 반면, 기존생산활동을 대체하는 1990년대 말에는 이전의 상이한 공간 이용 뿐만 아니라 해안의 동일건물에서도 횃집과 민박이 병행하게 되었다.

## 2) 연안 어촌: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리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간 결합에 있어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1980년대 초의 낚시와 어로, 민박과 거주 등으로, 기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와 유사한 관광관련활동이 병행되었다.

1980년대 낚시와 민박 중심의 관광관련활동은 1990년대에 이르러 유람선에 의한 감상위주의 관광이 시작됨으로써 횃집 및 잡화점의 관광관련활동과 결합되었다. 관광관련활동을 병행하는 이들의 출신지와 거주지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토착민들이, 이후에는 이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였고, 거주지에 있어서도 대체로 토착민들은 마라도에, 이주민 가족들은 마라도와 濟州島에 나누어 거주한다.

1990년대 말의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는 이전의 관광관련활동과는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기 직전인 1990년대 초와 그 이후인 2000년의 관광기능 분포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00년에는 1990년대 초에 비해 단일 관광관련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sup>3)</sup>.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은 그 종류에 따라 출현시기와 종사자 출신지가 차이를 보인다. 기념품·필름점, 승마장 등은 1990년대 중반에 이주민이 종사하기 시작한 반면, 유람선관련기능, 포장마차, 자전거대여점 등은 1990년대 말 토착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이 기술적으로 토착민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부문에 먼저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공간적 거주양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주민은 애월읍과 제주시에서 통근하거나 마라도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반면, 토착민은 모두 마라도에 거주한다.

## 3. 사례어촌간 관광지화 과정에 대한 비교

관광기능의 위치는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산1리는 「바다(기존활동+관광활동) → 바다·해안(기존활동+관광활동a +관광활동b) → 해안(관광활동a' +관광활동b' → 관광활동)」이고, 마라리는 「바다·해안(기존활동+관광활동) → 해안(관광활동a' +관광활동b' → 관광활동)」이다. 따라서 사례어촌의 관광지화에 있어 관광기능의 위치에 따른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관계 변화는 「바다(기존활동+관광활동) → 바다·해안(기존활동+관광활동a +(관광활동b))

3) 이주민의 관광공간과 토착민의 거주공간은 분리되어 있다.

→ 해안(관광활동a' + 관광활동b' → 관광활동)」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완관계를 이루는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병행에 있어 관광활동 종류의 다양화는 「바다·해안」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보완관계가 대체관계로 바뀌는 것은 상시적 관광관련기능이 많이 위치하는 「해안」 단계일때 임을 의미하는 것이다<sup>4)</sup>.

관광기능의 위치는 기능간 결합관계 뿐만 아니라, 결합양식<sup>5)</sup>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광기능 위치가 바 다인 경우의 겸업 양식에 있어 고산1리는 기존생산활동인 어로와 관광관련활동인 낚시의 시간적 겸업인 반면, 도서어촌인 마라리는 바다의 초기 관광활동인 낚시와 해안의 민박이 동시기에 나타남으로써, 관광기능 위치의 변화에 있어 「바다」란 단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광기능 위치가 바다·해안인 경우의 겸업 양식은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에서는 마라리의 어로와 낚시의 시간적 겸업이고,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에서는 고산1리의 낚시와 민박관리(낚시점·잡화점)의 시간적·공간적(가구단위) 겸업이다. 관광기능 위치가 해안일 때의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은 고산1리에서는 횃집과 민박이고, 마라리는 민박과 잡화점, 횃집과 민박, 횃집(식당)과 민박과 잡화점 등으로, 두 곳은 모두 시간적(가구단위) 겸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어촌의 생산활동 결합양식에 있어 보완관계의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은 바다의 시간적 겸업이고, 대체관계의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은 해안의 시간적(가구단위) 겸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간적·공간적(가구단위) 겸업은 고산1리에서만 이루어진다.

관광기능 위치에 따른 공간이용 양식의 변화는 생산활동의 결합양식과 공간이용 내용을 함께 살피는 것이다. 고산1리는 「바다공간 유사이용 →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 → 해안공간 상이이용 → 해안공간·동일이용」이고, 마라리는 「바다공간·유사이용 → 해안공간·상이이용 → 해안공간·동일이용」이다. 따라서 사례어촌에 있어 공간이용 양식의 변화는 「바다공간 유사이용 →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 → 해안공간 상이이용 → 해안공간 동일이용」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용 양식의 변화과정에 있어 새로운 생산활동 참여의 위험도에 대한 대응은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생산활동간 결합에 있어 대상공간의 범위 변화라는 차원에서의 위험도 변화로, 이러한 공간범위는 선택가능한 생산활동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보완관계는 기능(건물 단위) 또는 공간(바다 또는 해안)에서 공간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대체관계는 이전의 공간에서 기능으로 축소되고 있으므로, 선택가능한 생산활동 범위도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생산활동의 이용내용에 있어 상이한 정도의 변화라는 차원에서의 위험도 변화이다. 상이한 정도는 보완관계에서는 「유사이용 → 상이이용」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체관계에서는 「상이이용 → 동일이용」으로 감소한다. 결국, 생산활동 선택범위가 넓을수록, 공간이용이 상이할수록 새로운 생산활동 참여의 위험도는 보완관계에서는 높아지나, 대체관계에서는 낮아지므로, 공간이용 과정상의 위험도는 점차 높아지는 것이다.

#### 4.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공간이용 변화

사례어촌의 관광지화는 접근성의 차이를 반영할 뿐 아니라 1980년대 초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 과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가 「바다 → 바다·해안 → 해안」<sup>6)</sup>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생

4)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보완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대한 논의는 관광관련활동 중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관광관련활동이 기존생산활동을 대체한다는 것은 어촌 전체의 어업활동이 관광지화에 따라 감소 또는 소멸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겸업은 개인이 둘 이상의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부부가 각기 상이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산활동 종류가 상이하게 되는 것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시간이나,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다르면 시간적 겸업, 공간이 다르면 공간적 겸업, 사람이 다르면 가구단위 겸업이라 하고자 한다.

6) 세 단계가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앞의 단계는 뒤의 단계가 시작되더라도 계속 이어진다. 이는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변화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간 결합관계와 병행양식, 생산활동의 공간이용 양식 등의 변화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활동의 병행양식과 공간이용 양식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관광기능 위치에 따른 생산활동 병행양식은 생산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동일공간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시간적 겸업과 상이한 공간으로 구성되는 공간적 겸업으로 구분된다.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이 보완관계일때 바다의 어로활동과 낚시의 병행양식은 시간적 겸업이고 이어지는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양식은 바다의 낚시와 해안의 낚시점으로 구성되는 공간적 겸업이며, 횃집과 민박 등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이 기존 생산활동을 대체하면 시간적 겸업의 관광관련활동간 병행과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관광관련활동의 시간적 제약에 대한 대응에 있어 바다의 시간적 겸업은 기존의 어업활동과 유사한 관광활동으로써, 공간적 겸업, 해안의 시간적 겸업, 전업 등은 관광관련활동의 종류나 규모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관련활동의 공간이용 양식에 대한 분석은 「어디에서」에 따른 생산활동 병행양식에다 「무엇이」라는 생산활동 내용이 더하여 이루어졌다. 시간적 겸업은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보완관계와 대체관계에서 나타나고, 그 공간이용 양식은 보완관계에서는 「바다공간 유사이용」, 대체관계에서는 「해안공간 상이이용」 등이다. 그리고 두 시간적 겸업의 중간 단계인 공간적 겸업의 공간이용 양식이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이므로, 관광지화 전체 과정에 있어 생산활동 병행의 공간이용 양식은 「바다공간 유사이용 →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 → 해안공간 상이이용」으로 변화한다. 「바다공간 유사이용」은 기존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에서 어로와 낚시가 병행됨으로써 새로운 생산활동인 관광활동 참여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은 바다의 낚시와 해안의 낚시점 등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으로서 관광관련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안공간 상이이용」은 바다의 기존 생산활동이 관광관련활동으로 대체되어 해안의 횃집과 민박 등이 동일 건물에서 병행되는 것이고,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이 단일 기능으로 존재하게 되면 「해안공간 동일이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이용 양식의 전개과정은 새로운 관광활동 참여에 대한 위험부담을 점차 완화해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 과정에 있어 단계구분의 지표는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이고, 관광지화의 양상인 생산활동 병행양식은 「공간지향 → 시간지향」, 관광지화의 프로세스인 공간이용 양식에 있어 공간범위는 「확대 → 축소」, 이용내용은 「다양화 → 단일화」 등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Butler, R. 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Vol.24 No.1, pp.5-12.
- Young, B., 1983, "Touristization of traditional Maltese fishing-farming villages," *Tourism Management*, Vol.4 No.1, pp.35-41.